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9. 25.(수) 11:00 < 9.26.(목) 조간 > 배포 2024. 9. 25.(수)

K-수출, 주력·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

- 중·미·아세안 3대 시장 및 신흥시장에서 견조한 수출 증가세 지속 -
- 통상교섭본부장, 제9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 개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9.25.(수) 제9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를 개최하였다.

'24년 1~8월에는 수출이 9대 주요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하였다.

* 9대 주요 수출지역(수출액순) : (증가)중국, 미국, 아세안, 중남미, 일본, 중동, 인도, (감소)EU, CIS

우선, 대중국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(305억불, +34%)를 포함한 IT품목(389억불, +28%) 수출과 2대 품목인 석유화학(113억불, +1%)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+6.9% 증가한 862억불을 기록하였다.

대미국 수출은 1·2위 품목인 자동차(239억불, +22%)·일반기계(104억불, +23%)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3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세 자릿수 증가(61억불, +159%)하면서, 8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847억불(+15.5%)을 달성하였다.

대아세안 수출도 IT 품목(278억불, +18%)과 석유제품(114억불, +14%)·석유화학(45억불, +24%) 등 주력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+7.4% 증가한 752억불을 기록하였다.

한편, 대중남미(197억불) 수출은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+20.9%를 기록하였으며, 대일본 수출은 +3.3% 증가한 196억불, 대중동 수출은 +2.0% 증가한 130억불, 대인도 수출은 +7.9% 증가한 126억불을 기록하였다.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"우리 수출이 중국·미국·아세안 등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, 중동,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는 등 대다수 지역에서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"고 평가하고, "정부는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실적 달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수출입과	책임자	과 장	이창훈 (044-203-4040)
		담당자	사무관	여수항 (044-203-404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